

사회

불황 속 '청년 기부 문화' 확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광주 유덕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광주시 북구(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를 찾아 축구대회 준우승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학생 축구부 준우승 상금 장애인복지회 기부
젊은 주부 사회복지모금회 매월 10만원씩 전달
30대 14명 '농협사랑나눔회' 1인당 월 2만원씩
치과 의사 모임 '영우회' 희귀난치성질환자 돕기

지난달 27일 오후 4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람방이자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이곳에 운동복 차림의 중학생 5명과 체육교사가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축구협회장이 동아리 축구대회에서 준우승한 유덕중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들이 준우승 상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었다. 유덕중 위성환(35) 교사는 "상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자'고 했다"며 "어린줄만 알았던 학생들이 기부 얘기를 꺼내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오랜 경기불황과 실업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학생이나 젊은 기부자들의 기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청년 기부자'는 장기적인 기부활동이 가능하고, 기부가 각자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가족 등 지인인 물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년

이나 노년층 기부자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크다. 2년 전 100만원의 기부한 안은경(여·34)씨는 최근 남편 서현인(36)씨를 설득해 매월 10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남편 서씨도 처음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부인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다. 30대 젊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광주농협사랑나눔회는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2만원씩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 북구에 있는 모 중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정기탁하고 있다. 이 모임의 회장인 조영준(33)씨는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며 "길게 보고 꾸준히 기부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기부도 눈에 띈다. 전남대 치과대학 18회 졸업생인 한창훈(32)씨와 박해량(32)·박광준(32)·박철휘(32)·박휘성

(34)·안성재(32)씨 등 6명으로 구성된 '영우회'는 월 10만원씩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씨는 지난해부터 매월 30~100만원씩 꾸준히 기부를 해왔고 최근엔 부인 및 영우회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희귀난치성질환아동과 장애아동 치료에 쓰인다. 한씨는 "나를 제외하고는 영우회 회원 모두가 인턴·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몸으로 하는 기부는 쉽지 않다"며 "기부금을 절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다른 연령대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광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올 여름 개최한 바자회를 통해 얻은 140여만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불황과 실업난 속에서 청년층 기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아직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청년층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번엔 생수병에 농약

70대 할머니 범행 ... 이웃 3명 독극물 중독
도벽 비난... "며느리 밧값아라" 독촉에 앙심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식수에 독극물을 넣은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은 21일 이웃집 방장고 안 생수병에 극약을 넣어 이 물을 마신 이웃들에게 치명상을 입힌 A(여·7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고흥군 B(여·68)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에 농약 20ml를 몰래 주입해, 다음날 이를 마신 B씨 등 주민 3명에게 독극물 중독을 야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튿날 오전 다른 할머니 2명과 함께 이 물을 마셨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이 농약은 맹독성이었지만, 농도가 약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주민 B씨에게 앙감을 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병을 들고 가 2L 들이 생수병에 뚜껑 두 개 분량의 농약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도벽이 있다고 몰아세우고 내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을 나에게 갚으라고 재촉해서 화집에 농약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에서 희망근로자 4명이 청산거리가 든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독극물을 음식물에 넣어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경중기자 gjuu@

포도밭 컨테이너 불 ... 노부부 질식사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21일 오전 6시10분께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강모(70)·김치성(70)씨 부부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진 13.2㎡ 크기의 컨테이너가 전소됐다. 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m 옆에 있던 포도 저온창고(36.4㎡)도 모

두 불에 탔다. 두 딸을 둔 강씨 부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이곳에서 포도밭을 일구며 생활해 왔으며, 숨진 부부의 집은 화재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5년간 매년 7~10월 이곳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금슬 좋은 부부애를 과시하며 지내온 이들 부부의 사망 소식을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현장 감식을 의뢰한 결과, 주거용 컨테이너 밖에 있던 가스레인지 고무 호스에서 발화(發火)된 뒤 비닐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강씨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임용 무효 교사에도 퇴직금 줘야"

광주지법 판결

교사 임용 전 전과가 드러나 '임용 무효' 처분된 교사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를 지닌 최씨가 임용된 것은 당연무효"라면서도 "최씨는 자신이 제공한 근

로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손해를 봤고, 국가는 교사의 가르침이란 이득을 얻은 만큼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1969년 2월 나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40년간 근무한 전남 일선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이후 최씨는 임용 6개월 전인 지난 1968년 8월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령 근로자' 지원금 전용

나주 산림조합 8명 입건

나주경찰은 21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근로자'를 만든 뒤 수천만원의 군 지원금을 전용한 나주 산림조합 간부 이모(47)씨 등 8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을 허위로 꾸며 이들의 인건비 4천900여만원을 다른 근로자들의 간식비와 차량 유지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보조금 전용이 관행처럼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최형철기자 srchoi@



30억대 짝퉁 판매 4명 검거

목포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이모씨 등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 등 1천877점(시가 30억원 상당)을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채권 투자 시기 前 경찰관 '쇠고랑'

○광소 유력인사로 행세하며 채권 투자를 벌이던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전직 경찰관이 쇠고랑.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외화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투자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받아 갱긴 이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께 광주시 동구 한 식당에서 서모(48)씨에게 "액면가 5억원인 외평채 100장을 처분하면 2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직 대통령을 사모하며 유력인사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일반인들이 '외평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공범 4명과 함께 범행의 모의. /이종형기자 golee@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KA310BL 299,000원 219,000원 (부가세 포함) 노비타비데... 비데프라자 062-515-1144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선택할때... 062-363-4800